

아버지 김수경

김혜영 (金惠英) * 김태성 (金泰成) **

父、金壽卿

日本語要旨

本講演は、言語学者金壽卿の遺族が、金壽卿の個人史を簡単に振り返り、家族が離散家族として生きてきた物語を語ったものである。

1918年に江原道の通川に生まれた金壽卿は、京城帝国大学で哲学および複数の外国語を学んで言語学に生涯を捧げることを決心した後、東京帝国大学大学院で言語学と朝鮮語学に関する深層的な研究に足を踏み入れた。しかし第2次世界大戦終結以前に帰国し、朝鮮が日本の支配から解放された後、平壤に建てられる金日成綜合大学の教員への就任を求める委嘱状に応じて1946年に越北し、まもなく4人の子を持つ家長として、言語学者として、多忙な生活を送り始めた。

しかし金壽卿は、1950年の6.25戦争〔朝鮮戦争〕勃発後、金日成大学の教員の一人として南派され、家長の帰りを待ちきれずに家長を探して家族が南下した後に平壤に戻った。彼は家族と長く生き別れることになるとは思ひもしなかったであろうが、それはまたほかの誰にとっても予見できないことであった。南下した家族は家長を探し出す前に、休戦に伴う南と北の分断によって、韓国で〔戦争〕避難民として定着せざるをえなかったのである。家族は1950年代後半に、金壽卿の京城帝国大学在学時の指導教授であった日本人学者が韓国のとある言語学者に、金壽卿は平壤で学者として活動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伝えたという消息を間接的に耳にしたことで家長の生存の事実を知ることとなった。その後次男をのぞく壮健な子ら3人と妻はカナダに移住するが、1950年代に平壤で再婚した金壽卿は、1985年にカナダを訪問した〔中国〕延辺在住の学者の助けで1986年からカナダの家族と手紙のやり取りをし、1988年には北京で開かれた学会で38年ぶりに次女と再会した。1960年代後半以降学者として活発に活動できなかった金壽卿は、1988年の北京での学会参加以後に学術活動を再開することができた。その後1994年には平壤で、カナダで生まれた孫娘、孫息子と会い、1996年には46年ぶりに長男と、1998年には48年ぶりに妻と再会した。長男と妻との再会は、金壽卿が1995年に脳卒中を患った後、彼の健康状態が時代に悪化する中で実現したことだった。

金壽卿のカナダ在住の家族は、平壤在住の家族から、金壽卿が健康を回復することなく2000年3月に亡くなったという知らせを受けた。

일 러 두 기

이 강연은 2013년 11월 9일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에서, 도시샤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1918-2000)의 재조명”에서의 강연이다.

한반도의 분단 후 김수경(金壽卿)이 학자로서 걸은 길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는데, 더구나 그의 성장 과정이나 개인적 면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김수경의 언어학자로서의 업적과 면모는 이 심포지엄에서 학자들이 다루게 되므로, 유족은 다만 김수경의 개인적 면을 돌아보았을 뿐이다. 그나마, 6·25 전쟁 당시 이산가족이 된 김수경의 유족으로서, 남아 있는 한정된 자료와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한 강연이기에 청중의 넓은 이해를 기대한다. 강연의 길이에 대한 시간적 제약도 있어서, 어떤 부분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없었음도 밝히며, 비교적 자세히 작성된 연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도시샤대학과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단된 한반도의 수많은 이산가족 중의 한 가족으로서, 그 모든 이산가족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선생님의 논문 “김수경의 조선어(朝鮮語) 연구와 일본”에서 아버지의 가정 배경 및 학생으로서의 성장 과정이 소개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되풀이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개인사(個人史)라기보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 김수경’에 관한 단편적(斷片的)이고 두서(頭緒)없는 이야기가 되겠기에, 잘 헤아려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는 아버지’인데, 저희의 경우는 ‘들어서 아는 아버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헌상의 아버지는 ‘월북한 학자’이겠으나, 저희에게는 ‘헤어졌어도, 늘 같이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친할머니는 헤어진 아들을 못 잊으시어, 저희와 같이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저희의 삶에 심어 주셨는데, 그것이 저희의 성장에 끼친 영향은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의 학자적인 면모는 제(차남 김태성)가 중학생이었던 때부터 외국어와 국어에

관심을 갖게 한 자극제가 되었고, 마침내 저도 학문을 직업으로 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한편, 아버지의 존재는 저희 가족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자이셨을 뿐이지, 정치가는 아니셨는데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숨겨 놓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친구들에게조차 스스로없이 말하기 싫었고, 누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몹시 난처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아버지를 아시는 교수님들께도 저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구태여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저희의 이야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 고집 있는 아이는 청년으로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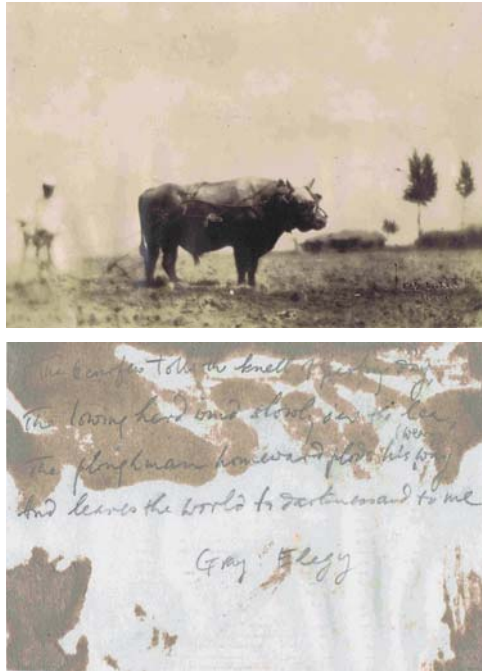
1.1 조용하나 고집 있는 아이

‘김 변호사네 작은아들’로 자라신 아버지는 유년 시절부터 집안에서 ‘조용하고 공손하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굽히지 않는 아이’로 알려지셨습니다. 3-4세 때의 일화인데, 아버지께서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저희 할아버지께서 담뱃대 같은 것을 입에 물어야 하는 벌을 주며 용서를 빌라고 하시자, 한 시간 이상 꼼짝하지 않고 그것을 물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어른들이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어학으로서의 문헌학(독일어로 Philologie)의 어원적 의미는 ‘말에 대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익살스러운 말장난(언어유희)에 재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통골 통서방이 대갈통을 맞아 울통불통하여라.” 등의 말을 하며 즐기는 따위였습니다. 일본어로 공부하는, 일본인을 위한 학교인 군산공립중학교의 학생이 되어서는, 웅변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한 15세 소년은 망토를 자랑스럽게 걸친 여느 예과생들과 다름없이 청량리(淸凉里)의 자연 속에서 학교생활을 즐기며, 학문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희에게 좀 남아 있는 아버지의 예과 시절의 사진 중, 다음 사진은 볼 때마다 저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영국 시인 토마스 그레이(Thomas Gray, 1716-1771)의 시 “시골 교회 묘지에서 읊은 만가(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의 첫 부분¹⁾이 영문(英文)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c. 1934-c.1937 경성제국대학 예과 주변 청량리의 시골 풍경과, 아버지께서 뒷면에 적으신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의 첫 부분



실은, 유명한 시 때문에 저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조용한 성격의 열대여섯 살 소년이 학교에서 배웠을 영시(英詩)를 사진에 적어 놓는 장면을 상상하면, 그 손놀림이 보이는 듯,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희는 어렸을 적에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대학에 계셨던 훌륭한 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웃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나 되듯이 자주 듣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학 교수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²⁾,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철학 교수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선생님들은 저희가 어린 나이에 들어갈 줄도 몰랐었는데, 마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듯했습니다.

1.2 도쿄 생활과 결혼

1940년 4월에 도쿄제국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아버지는 비슷한 나이의 친척인 화가(畫家) 김민구(金敏龜) 씨와 가까이 지내셨고, 한국미술사(韓國美術史)의 권위자 황수영(黃壽永, 1918-2011)³⁾ 박사와의 이 시기에 교류하신 듯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버지의 미술에 관한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저희 집안의 어머니 쪽으로도 문학,

예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지금도 집안에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방학 때마다 귀향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1942년 봄방학 때에 결혼하는 친구 들러리를 서 준 결과, 신부 들러리를 신, 이화여자전문학교(梨花女子專門學校) 문과(文科) 출신의 키 큰 아가씨를 만나시게 되었고, 이듬해 봄방학에는 이 두 들러리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도 없는 학생을 남편으로 택한 어머니를 어리석은 신부로 볼지 모르나, 부모님의 결혼은 물질보다는 상대방의 가치관(價値觀)을 중요시한, 두 이상주의자(理想主義者)의 결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의 “생활은 소박하게, 생각은 고상하게(Plain Living and High Thinking)”라는 문구(文句)를 생활신조(生活信條)로 삼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시절부터 여러 외국어에 능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어를 높은 수준으로 습득한다는 것에는 부단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학창 시절부터 시간을 무척 아끼셨는데, 도쿄에서 공부하실 때, 결혼 후에는 어머니께서 이발(理髮)을 해 주시는 동안에도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1.3 전쟁을 피하여

짧은 신혼여행 후, 도쿄에서 사시다 여름방학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신 부모님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혜화동 집에서 지내셨는데, 아버지는 개학 때에 도쿄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경성제국대학에서 무급(無給) 조수로 일하시며 학도병(學徒兵) 징집(徵集)을 피하신 점이 제일 큰 이유로 보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늘 아버지를 느끼며 자라온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징집을 피하기 원하셨다’기보다는 ‘전쟁 자체를 피하기 원하셨다’고 보고 싶습니다. 철학, 언어학, 문학, 예술에 둘러싸여 지내신 아버지께 전쟁은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해방이 된 1945년 12월부터 경성경제전문학교(京城經濟專門學校)⁴⁾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처음 돈벌이를 하시고 어머니는 연년생(年年生)을 돌보시며,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아내는 아이 키우는’ 평범한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들처럼 어린 두 아이의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 수첩 속에 언제나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2 평양(平壤)

2.1 놀라운 결정

두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단란한 생활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1946년 8월 16일 저녁, 아버지는 어머니께 새로이 창립되는 김일성대학(金日成大學, 이하 ‘김대’)의 교수 요원이 되어 달라는 위촉장에 응하여 평양으로 떠난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시고는, 밤에 김석형(金錫亨), 박시형(朴時亨) 두 친구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38선(線)⁵⁾을 넘는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음달에 만 94세가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중대한 얘기를 떠나기 바로 전에야 하신 것에 대해 지금도 섭섭해하십니다.

두 달 후 어머니께서, 역시 위험을 무릅쓴 채, 아이들을 데리고 평양에서 아버지와 합류하셨는데, 김대 건물이 마주 보이는 김대 교원 사택에서 단란한 가족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저희 가정의 ‘자리를 잡아 가는 시기’로 부를 수 있는데, 어머니는 또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아 네 아이를 키우시게 되었고, 아버지는 강의를 맡은 바쁜 생활에서도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김대에서 노어(露語)도 가르치셨는데, 아버지와 나이 차(差)가 많은 저희 고모(姑母)는 작은오빠를 교수로 둔, 김대의 노어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고모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시는 성격으로 노어 전공 학생들 중 성적이 제일 우수하였지만, 아버지는 다른 학생에게 1등의 점수를 주셔서, 고모는 늘 2등짜리 학생밖에 되실 수 없었습니다. 고모는 아버지께 항의(抗議)를 하셨으나, 아버지는 끝내 그 석차(席次)를 바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80대 후반의 연세이신 고모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배운 푸시킨(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Пушкин, 1799-1837)의 시를 지금도 눈을 지긋이 감고 읊으십니다.

앞서, 아버지는 성격이 과묵(寡默)하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예고 없이 식사 시간에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실 정도로 친구들과의 교유(交遊)를 소중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때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손님 접대로 당황해하시면, 아버지는 “아,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2.2 어긋난 길

1950년 6월 25일의 전쟁 발발(勃發) 후, 8월에 아버지도 김대 교원들로 이루어진 단기(短期) 선무공작대(宣撫工作隊)의 일원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전라남도(全羅南道)까지 내려가셨다가, 인민군(人民軍)을 따라 북쪽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다른 김대 교원들은 다 평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만 뒤처지시게 되었습니다. 인민

군이 여러 외국어, 특히 영어를 잘 구사(驅使)하시는 아버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어 방송을 듣는 일, 연합군을 의식한 통역 일 등에 대비하여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해 9월의 연합군의 북진(北進) 당시 김대 교원 가족들은 폭격을 피해 평양 근교의 시골로 소개(疏開)해 있었는데, 김대 교원들은 가르친다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기 위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친구 김득중(金得中) 교수로부터 더 이상 돌아올 김대 교원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장(家長)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피란민들에 섞여 언제 어디에서 폭격에 맞을 지도 모르는 저희의 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험하다 험한 피란길이었지만,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평하거나 보채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황해도까지 내려오셨을 때, 어느 시골 집에 들어가 잠시 쉬어가기를 청했더니, 그 집 주인은 거지 행색을 한 많은 피란민에게 정성스러운 점심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집 주인에게 그 고마움을 갚고 싶어하십니다. 이어진 피란 과정에서 짐이 없는 미군(美軍) 트럭이 보이자 어머니께서 서울역까지 태워다 달라고 어린 미군에게 영어로 부탁하여, 다른 피란민들과 저희는 지친 몸을 트럭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어를 아셨기에 가족과 떨어져 인민군을 도우셔야 했고, 어머니는 영어를 아셨기에 미군 트럭을 얻어 타신 것은 전쟁의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민군을 따라 북쪽으로 후퇴하신 과정은 문자 그대로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길이었습니다.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고향 통천(通川)에 들어서니 온 마을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 친척들은 찾을 수도 없었고, 드디어 1951년 3월 초에 평양 근교로 가, 김대 교수로 계시던 아버지의 외숙부⁶⁾ 가족을 먼저 만나셨는데, 외숙모로부터 가족은 아버지를 찾아 남하(南下)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3 이산가족(離散家族)이 되어

3.1 육모정(六母亭)

부모님도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한반도의 장기(長期) 분단은 생각하지도 못하셨기에, 서울의 혜화동 집을 그대로 둔 채, 서울의 명륜동에서 사시던 저희 큰아버지께 집 관리를 부탁하고 월북하셨습니다.

가장을 찾아나선 어머니께서 가장이 되어 혜화동 집으로 오셨을 때에는, 전쟁통에 맨

몸으로 피란 온 사람들이 겪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고, 정든 집까지 처분하셔야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큰어머니 친정(親庭)의 배려로 큰아버지 가족과 저희 가족은 전라북도(全羅北道)로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양민증(良民證)’⁷⁾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실 수 없었기에, 저희 가족은 당시 옥구군(沃溝郡) 임피면(臨陂面)에서 한동안 피란민 배급으로 연명(延命)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신 어머니는 시댁의 사돈댁에 폐를 끼치며 생활하실 수밖에 없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임피에서 큰어머니 친정아버님께서 친구들과 풍류(風流)를 즐길 때 쓸 목적으로 지으신 별장 ‘육모정(六모亭)’에서 살았습니다. 그 건물은 이름대로, 벽면이 여섯이 있어 여섯 모가 난, 주위의 자연과 조화(調和)되도록 아름답게 설계된 이중집이었는데, 그런 멋진 집에서 끼니 걱정밖에 못 한 것 또한 전쟁이 부른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 가장 치참한 전쟁의 아이러니는 인민군이 영어 지식 때문에 아버지를 필요로 했던 반면, 전쟁 때 저희 할아버지는 인민군에 의해 학살(虐殺)당하신 것이었습니다. 혼돈(混沌)과 혼란(混亂)의 시기에, 양쪽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한반도 역사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3.2 작은 희망의 씨앗

저희의 피란민 생활이 끝난 것은 1953년 4월부터 어머니께서 경상남도(慶尙南道) 무안면(武安面)의 무안중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때였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지금은 전북대학교(全北大學校)가 된 이리농과대학교(裡里農科大學校)⁸⁾에서 농업경제학 교수로 일하시게 된 후, 같은 학교의 교수⁹⁾를 고모한테 소개하시어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고모부의 여동생이 무안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하면서 그 자리에 어머니를 추천하신 덕택이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되신 어머니는 양민증도 어려움 없이 갖추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직장 가진 가장이 되셨고, 저희와 같이 사시던 할머니는 아이 넷을 돌보시는 주부(主婦)의 역할을 맡으시며, 두 분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자란 다음에 안 일이지만, 가끔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머니께, “남편의 생사(生死)를 아는가? 남편하고 어떤 연락을 취하는가?”라고 의심을 하며 범죄자 심문하듯이 귀찮게 굴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어머니께서 정부에서 행한 ‘호적(戶籍) 정리(整理) 기간(期間)’에 아버지를 ‘사망(死亡)’으로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었기에 없어졌습시다만, 남편을 서류상으로나마 사망자로 만드는 아내의 괴로움

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말, 어머니는 고대(苦待)하던 소식을 큰아버지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바야시 선생님께서 김대의 아버지로부터의 문안(問安) 편지를 일본에서 받으셨다는 소식이 서울의 국어학자 이승녕(李崇寧) 선생님을 통해 큰아버지께로 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조금 더 자란 다음에야 이 소식을 알려 주셨는데, 저희와 비슷한 사정의 이산가족들은 여러 면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 소식이 무엇보다 기뻐지만, 저희가 갈 수 없는 평양에 계시다는 것이 욕심 많은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의 가슴에 희망의 작은 씨앗을 심어 주었으나, 저희 가족은 그 희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어머니께 “오늘 신문에 뭐 통일(統一) 된다는 말은 없디?”라고 묻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못 만나신 채 돌아가신 것은 저희 가슴에 한(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오매불망(寤寐不忘) 저희 아버지 생각만 하셨으므로 어머니는 “만약 가족 중 한 사람만 너희 아버지와 상봉이 허락된다고 하면, 나는 너희 할머니께 그 자리를 양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 무덤이라도 어루만지고 싶다.”라고 하시며, 깊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의 교사이셨기에 규정에 따라 저희가 한 곳에서 오래 살 수는 없었는데, 무안에서 밀양(密陽), 진영(進永)으로 이사 다니다가, 1961년부터는 어머니께서 부산시(釜山市)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시게 되어, 저희는 부산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저희는 올림픽 대회 전에 올림픽 성화(聖火)를 들고 개최 장소까지 달리는 사람처럼,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이사를 다닌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진학, 진로 결정, 결혼 등의 일에서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혼자 결정하셔야 했을 때, 아버지를 더 생각하셨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은 물론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는 것이었겠지만, 가끔은 아버지 때문에 아이 넷을 혼자 키우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셨다며 아버지를 원망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해마다 어머니날이 되면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만, 저희는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못지 않게 어머니의 은혜를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노래를 날마다 불러도 어머니 은혜에 보답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3.3 첫딸의 결단

저(차녀 김혜영)의 언니(장녀 김혜자) 역시 어렸을 적엔 동시(童詩) 짓기도 즐기는 편이었으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간호학(看護學)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는 북미나 유럽 진출이 쉬웠기에, 해외에서 아버지 소식을 알아 보겠다는 것이 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언니는 간호학을 공부한 후, 캐나다로의 이민 수속을 밟고 있던 청년과 결혼하게 되었고, 1970년에 캐나다로 이민했습니다. 그 후 언니의 가족 초청으로 저와 오빠, 어머니까지 차례로 가족이 토론토에 모였습니다. 동생을 그리워하시던 큰아버지마저 1974년에 돌아간 후로 저희의 마음은 더 초조했으나, 평양 방문의 기회가 올까 해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해 놓은 것밖에는 별달리 한 것 없이 저희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외국어대학(韓國外國語大學)에 와 계시던 도호쿠대학(東北大學) 교수 나카무라 다모쓰(中村完) 선생님께서 저의 사촌언니¹⁰⁾가 일본어를 배웠는데, 그 인연(因緣)으로 제가 1983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센다이(仙臺)의 나카무라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께서 1980년에 평양에서 아버지를 잠깐 만나신¹¹⁾ 이야기를 들으며, 찍어 오신 사진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께서 찍어 오신 사진은 헤어진 후 처음으로 본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센다이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新幹線)에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즐기지 못하고, 김일성대학이 아닌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신다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교차하는 만감(萬感)을 떨쳐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아버지께서 경성제국대학 조수 시절 잘 아셨던 언어학자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선생님의 제자로, 평양 방문 시 가능하다면 안부를 전해 달라는 스승의 부탁을 들어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의 주선으로 저는 도쿄에서 연로하신 고노 선생님도 만나 뵈 수 있었는데, 나카무라 선생님과 고노 선생님의 따뜻한 음성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3.4 강연회에 간 까닭은

1985년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토론토를 방문 중인 연변대학(延邊大學)의 역사 교수 고영일(高永一) 선생님의 강연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그 강연회에 가서서 고영일 선생님께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평양의 가족에게 편지를 인편(人便)으로 전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세상은 좁다고, 고영일 선생님은 1956년에 연변대학을 방문하셨다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고영일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희가 1986년 봄에 아버지의 편지를 인편으로 받은 후, 아버지와 캐나다 거주 가족은 캐나다 체신청(遞信廳)을 통해, 느리지

만 불편 없이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고영일 선생님의 고마움은 잊을 수 없습니다.

1986. 1. 15. 아버지께서 네 아이들에게 헤어진 후 처음으로 보내신 편지¹²⁾

혜자, 태정, 혜영, 태성에게

1950년 8월초 평양교외의 어느 농촌집앞 시내물에서 너희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헤어졌었이 이같이 지나간 리벌의 첫시각이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느냐? 너희들과 헤어진후 어린것들이
어디서 쪽잠이라도 번번히 자고있는지 마음속 깊은곳에서 언제나
걱정하고있었는데 수십년이 지난 오늘 뜻밖에 너희들의 소식과
사진을 받아보게 되고 모든다 혼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아버지의 첫 편지에 아버지의 재혼 사실이 적혀 있어서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지만, 추후(追後) 아버지의 설명은, 만약의 경우, 어머니께서 그 첫 편지밖에 못 받으실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사실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첫 편지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의 성격의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경험을 하신 아버지는 편지도 ‘헤어지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재혼 사실로 어머니께 늘 용서를 구하는 심정을 가지신 듯했는데, 세월이 흐른 후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재혼하시지 않고는 개인적으로나 대외적(對外的)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으신 듯했습니다.

4 베이징에서, 그 후

4.1 부녀(父女)의 상봉(相逢)

제(차녀 김혜영)가 1988년 8월에 베이징대학(北京大學)에서 열린 제2차 조선학(朝鮮學) 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평양의 학자들과 같이 오신 아버지를 뵙게 되었는데, 이 부녀 상봉(父女相逢)이 이루어진 데에는 베이징대학 교수 최응구(崔應九) 선생님의 힘이 컸고, 토론토대학 교수 백응진(白應進) 선생님의 숨은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캐나다로 이민한 후, 둘째 아이가 두 살이 되었을 때 문리과대학(文理科大學)의 교과과정에 대한 호기심(好奇心)이 일어, 다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의 흥미(興味)도 있었지만, 아버지 소식을 듣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언어, 연

어 교육 쪽의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가족 배경이 주변에 약간 알려지게 되었고, 말이나 생각이 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저의 막연한 생각은 싹을 틔워, 앞서 말씀드린 두 분께서 부녀 상봉을 도와주시게 된 것입니다.

한 주일의 학회 기간 동안 아버지는 최응구 선생님의 배려로 참가자 중 유일하게 독방(獨房)을 쓰셨는데, 부녀가 자유로이 한 방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간 분이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는 방 안으로 저만 끌어들이고 문을 ‘무례할 정도로’ 닫고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는데, 그 38년 만의 포옹이 몇 분 동안 계속되었는지는 지금도 기억해 내기 어려운, 그저 ‘영원(永遠)’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부녀 상봉에 대해,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파우스트(Faust)’를 인용하여 “멈추어라 이 순간이여!”라는 말로 그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청춘으로 돌아간 듯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앞에서 아버지께서 전쟁 때 김대 교원들과 남쪽으로 내려갔다 북쪽으로 후퇴하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린 것 등은 베이징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학회 참가자들과의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제가 아버지 방으로 가서 잠시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어긋난 길을 걸어 서로 헤어지게 된 전쟁 당시의 얘기를 꼭 해 주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저한테 “애, 또 그 전쟁 일기(日記) 계속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사일생으로 고향 통천에 들어서며, ‘그리운 친척들을 만나겠구나, 어쩌면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찾아 통천에 와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시며 오랜 행군(行軍)으로 지친 몸을 가누셨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벨기에 작가 로텐바흐(Georges Raymond Constantin Rodenbach, 1855-1898)의 ‘죽음의 도시 브뤼즈(Bruges-la-Morte)’라는 소설에 나오는 장면과 흡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는 전쟁통에서도 문학적인 감수성을 잃지 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회 기간 중 하루는 잠시 시간을 내어 평양의 가족들에게 전할 선물을 사러 아버지와 백화점에 갔는데, 여자들 옷감을 고르면서 아버지와 천의 색, 무늬, 질감(質感)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다가, 아버지와 저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는 은근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저도 모르게 ‘자라면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들어 온 아버지’와 ‘내 눈앞에 살아 움직이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어느 정도로 비슷한가를 끊임없이 비교해 보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완벽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도록, 사진기나 녹음

기 따위마저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38년간 바랐던 것은, 그저 어린 아이가 아빠와 한 방에서 서로가 있음에 만족하고는 어떤 놀이를 같이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충만하고 은은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평범한 시간을 잠시라도 갖는 것이었기에, 아버지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수록 제 마음은 더 흐뭇했습니다.

피를 나눈 부녀간에도 묻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겠는데, 저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버지께서 살아오시며 하신 인생의 여러 선택에 만족하시는가, 학자로서의 긴 공백기에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가 등의 질문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학회 기간 중 토론토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 전화 통화 사실은 저희 가족에게, 특히 언니에게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덧붙여, 아버지께서 서울의 동생에게 쓰신 편지를 저는 후에 동생에게 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에 동생이 학자로서 완성되어 간다니 기쁘고, 독일의 Philologie(문헌학)를 잘 하라는 말씀도 쓰셨는데, 헤어진 아이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셨는데도 학계(學界)로 발걸음을 댄 아들이 있다는 것에 흐뭇해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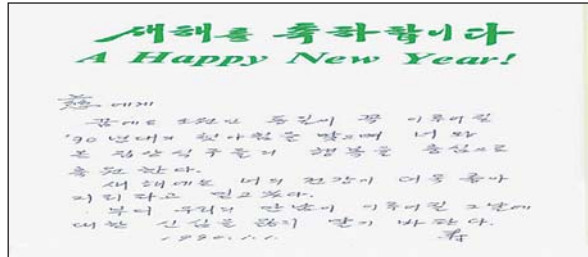
학회가 끝난 다음, 저는 평양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 머물며 아버지와 평양의 막내여동생¹³⁾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평양 안팎을 구경하고, 둘째 날 저녁에는 아버지의 아파트로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하신, 평양 동생들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신 분으로 보였고, 동생들도 곳곳하게 자란 젊은이들로 보였습니다. 평양 동생들은 아직 만나지 못한 형제들한테 보내는 진심어린 편지를 써서, 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는데, 그 마음씨가 가늠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여기가 네가 살던 김대 교원 사택 4호가 있던 자리란다.”라고 하시며 손가락으로 빈 터를 가리키셨을 때, 한 순간 ‘아, 우리 가족이 그 사택에서 내내 살았더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버지께서 북쪽으로 후퇴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남하한 후 만나서 다 같이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4.2 연하장(年賀狀)

아버지는 1990년 1월에 암과 투병 중이던 저(차남 김태성)의 큰누나한테 연하장을 보내셨는데, 큰누나는 아버지의 간곡한 바람과 달리, 그로부터 1년 후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사 남매 중 아버지와의 추억을 제일 많이 가졌던 큰누나, 아버지 소식을 알고자 캐나다로 가족을 불러 모은 큰누나 자신은 아버지를 모시고 지내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가 버린 것입니다. 큰누나의 투병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부터 “곧 낫겠지.”라는 긍

정적 태도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께서 다시 만나지 못한 첫아이를 잃으신 심정은 아이 가진 저로서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1990. 1. 1. 아버지께서 투병 중인 첫째 딸 김혜자(金惠慈)에게 보내신 연하장¹⁴⁾



어머니는 그 슬픔을 ‘빈 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조(時調) 한 수(首)에 담아 보셨습니다.

빈 들

고요의 저녁 빛이 살며시 내린 빈 들
 양상한 나뭇가지 새 떼마져 가 버리고
 잿 잃은 딸 모습 그려 초승달을 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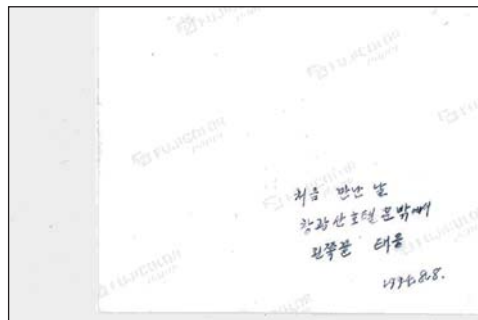
청초한 너의 모습 초승달로 웃는구나
 너 놀던 동산이야 바람 일던 가시밭 길
 한 맺힌 너의 큰 날개 새 하늘을 날렘.

5 이어진 상봉의 기회

5.1 이어진 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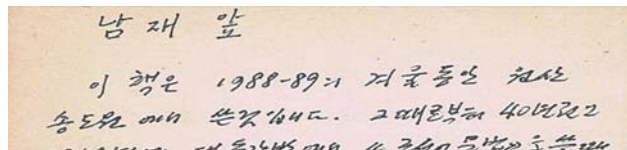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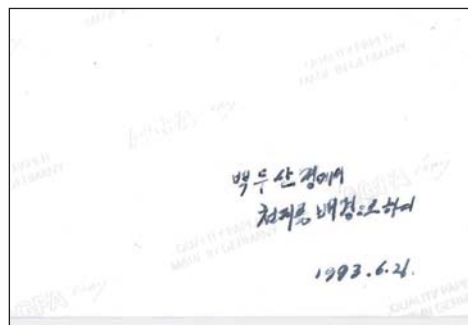
1994년 여름에는 저(차녀 김혜영)의 두 아이¹⁵⁾가 원산시(元山市)¹⁶⁾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에 다른 가정의 남매(男妹)와 같이 캐나다 청소년으로 참가하여, 평양에서 외할아버지를 뵈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1994. 8. 8. 평양. 왼쪽부터 평양의 동생 김태웅(金泰雄, 4남), 아버지, 임유진, 임유라



아버지는 저의 아이들 편에 많은 선물을 보내셨는데, 1989년에 출판된 아버지의 저서 “세나라 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한 권 보내셨습니다. 그 책 속에는 1993년 여름에 백두산(白頭山)¹⁷⁾에 올라 찍으신 사진을 곁들여 어머니께 쓰신 쪽지¹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등산(登山)을 즐기셨는데, 75세에 젊은이들 틈에 끼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에 오르심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모범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1993. 6. 21. 백두산에 오른 아버지
사진의 뒷면에 “백두산정(白頭山頂)에서 천지(天池)를 배경으로 하여”라고 쓰여 있음.



어머니께 보내신 쪽지는 짧지만 아버지의 성격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는 글이어서, 여러 분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남재 앞

이 책은 1988-89의 겨울동안 원산 송도원에서 쓴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년 전인 1949년에 대동강변에서 “조선어문법”을 쓸때 당신이 적극 성원해 주던걸 계속 생각하면서 귀속에 올리는 당신의 고무의 속삭임소리를 듣는 가운데 이미 70이 넘는 때였지만 힘과 용기를 내여 끝까지 쓸수 있었습니다.

1990년 여름 만나면 전하려던것인데 기회를 잃어 겨우 이번에 보냅니다. 송도원

국제야영소에 갔다오는 유라, 유진의 편에 보내게 된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의 성격상 혜영이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1994년 8월 15일

壽”

이 쪽지에 쓰인, “1990년 여름 만나면 전하려던것인데 기회를 잃어”라는 말은, 어머니께서 1990년 여름에 평양을 방문하시면 그때 그 책을 주시려던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1988년 여름에 저를 만나신 후, 어머니께 1990년 여름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세우시라고 여러 번 간청(懇請)하셨습니다.

이어, 1996년에는 저의 오빠가 토론토의 이산가족 몇 분과 같이 평양을 찾아,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한테, “너희들에게 연필 한 자루, 과자 한 봉지 사 주지 못했다.”라고 하시며, 미안해하셨다고 합니다.

(왼쪽) 1996. 7. 17. 평양. 아버지와 장남 김태정(金泰正)의 46년 만의 상봉
(오른쪽) 뒷줄 왼쪽부터 평양의 동생 김태균(金泰均, 3남), 아버지, 김태정



5.2 성불사(成佛寺)의 풍경(風景) 소리는 불국사(佛國寺)를 부르고

어머니는 평양에 다녀가시라는 아버지의 간청에도, 주변의 권유에도, 어색한 방문을 왜 하겠느냐는 태도를 오래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1892)의 서사시(敍事詩) ‘이노크 아든(Enoch Arden)’의 내용¹⁹⁾을 비유적으로 상기(想起)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1995년에 겪으신 뇌졸중(腦卒中)의 후유증이 조금씩 심해지자, 어머니는 1998년 여름에 아버지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버지의 기억력이 전보다 못한 때였지만, 옛날 일들은 또렷이 기억하셔서, 그런 대로 두 분께서 대화를 이어

가실 수 있었나 봅니다. 성불사(成佛寺)에서의 두 분의 사진은 55년 전 불국사(佛國寺)에서의 신혼여행 사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1998.7. 48년 만에 상봉하신 부모님, 황해북도(黃海北道) 사리원시(沙里院市) 소재 성불사에서



1943.3.24. 신혼여행 중의 부모님,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시(慶州市) 소재 불국사에서



아버지는 몸이 부자유스러워진 다음에도 비뚤비뚤한 글씨로 어머니께 간단한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000년 3월 1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고는,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없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평양의 큰남동생이 편지 속에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동봉했는데, 그 자상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와 동년배이셨던 허웅(許雄)²⁰⁾ 선생님은 아버지의 부음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북으로 가지지 않고 남한에서 연구에 매진하셨더라면 더 많은 업적을 쌓으셨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의 ‘이름’이란 바로 ‘정신 세계’라는 생각을 하며, 저희는 오늘도 아버지의 세계에서 숨쉬면서, 아

버지를 조금씩이라도 배워 나가려고 애씁니다.

이야기를 맺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주로 아버지의 연보 작성을 도우며, 191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타임 머신을 타고 왔다갔다한 느낌이 듭니다. 한 지식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한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께서 번역하신,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조선 서지(朝鮮書誌)” 서론의 끝 부분에 조선을 가리켜 “운명의 장난으로 진가(眞價)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버지께도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도 학문 활동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여건과 제약으로 아버지께서 학자로서의 자질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셨겠지만, 학자로서의 아버지의 생애가 결코 의미 없는 삶은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셨다고 보는데, 남들이 잘 택하지 않는 철학과에 진학하시고 언어학을 공부하신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시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제 후학과 후손들의 몫일 것입니다.

저희가 자랄 적에 저희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남한테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을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어(民族語)의 연구에 필생(畢生)의 뜻을 두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과학 활동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의지와 꿈이 활짝 피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는데, 유족인 저희는 학자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며, 특히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알찬 논문을 발표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

* 김혜영(金惠英): 김수경의 차녀.

** 김태성(金泰成): 김수경의 차남.

- 1) The curfew tolls the knell of parting day,
The lowing herd wind slowly o'er the lea,
The ploughman homeward plods his weary day,
And leaves the world to darkness and to me.
- 2)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는 아버지를 제자로 여겨 온갖 정성을 쏟으셨음을 그의 수필 「제자(教え子)」에서 알 수 있다.
- 3) 1941년에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
- 4)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되었음.
- 5)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군사분계선.
- 6) 경제학 교수 이종식(李鍾植).
- 7)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의 “민간인 학살 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새롭게 밝혀지는 현대사 기록 88, 2000.6.12)에 “한국전쟁 당시에 전선이 교차하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가 하는 점이 불분명하게 되자 주변의 보증을 통해 국군이 들어온 이후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협력하려는 주민들을 양민으로 분류한 것이다.”가 나온다. 양민증은 양민임을 증명하는 작은 카드였다.
- 8) 1947년 10월 15일에 개교, 1951년에 전북대학교에 흡수, 통합되어 국립전북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음.
- 9) 식물병리학(植物病理學) 교수 김종희(金宗熙).
- 10) 큰아버지(김복경金福卿)의 3녀 김완식(金婉植).
- 11) 나카무라 다모쓰 교수는 1980년 11월에 도호쿠대학 학자 방조·방중단(訪朝·訪中團)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음.
- 12) 부록(附錄) 1 참조.
- 13) 김혜옥(金惠玉).
- 14) 부록 2 참조.
- 15) 딸 임유라(Grace Eura Im, 당시 18세)와 아들 임유진(Daniel Eugene Im, 당시 16세)
-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江原道) 동해안(東海岸) 영흥만(永興灣)에 있는 시. 강원도의 도 소재지이며, 근처의 송도원(松壽園) 해수욕장과 명사십리(明沙十里)가 유명하다.
-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강도(兩江道) 삼지연군(三池淵郡)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吉林省)에 걸쳐 있는 휴화산. 높이 2,744m.
- 18) 부록 3 참조.
- 19)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역선을 타고 항해를 떠났다가 폭풍우를 만난 이노크 아든은 오랜 세월 후 구사일생 돌아온다. 이노크를 십 년이나 기다린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믿고, 이노크의 친구와 결혼해 행복하게 지낸다. 이를 알게 된 이노크는 죽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의 생존, 귀향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 20) 서울대학교 교수, 한글학회 회장을 지낸 국어학자(1918-2004).

부록(附錄)

1 1986.1.15. 아버지께서 네 아이들에게 헤어진 후 처음으로 보내신 편지의 전문(全文)

혜자, 태정, 혜영, 태성에게

1950년 8월초 평양교외의 어느 농촌집앞 시내물에서 너희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헤어진것이 이같이 기나긴 리별의 첫시작이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느냐? 너희들과 헤어진후 어린것들이 어디서 쪽잠이라도 변변히 자고있는지 마음속 깊은곳에서 언제나 걱정하고있었는데 수십년이 지난 오늘 뜻밖에 너희들의 소식과 사진을 받아보게 되고 모두다 훌륭한 사회의 영군으로 자라난 모습을 보니 참말 기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다.

그사이 물론 할머님, 백부님의 노력이 많이 깃들어있었겠지만 누구보다도 너희들의 어머니의 공이 클것이다.

너희들이 어린하였느냐마는 너의 어머니에게 직접 보내지 못하는 나의 변함없는 정까지 합해서 언제나 어머니를 잘 돌보아 드리고 항상 마음기쁘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혜자와 태정이가 나란이 서서 노래를 잘 부르던 일이며 나와 손목잡고 모란봉, 대동강가, 룡라도 등으로 산보하던일, 대학 내방 창문에서 내다보면 집앞에서 뛰노는 모습이 잘 보이던 일 등등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하면 끝이 없다.

그중에도 일하다가 문득 너희들중 누구의 생일날이란것이 생각나는 날에는 온종일 너희들 걱정을 하는 일이 많았다. 어렸을 때 혜자 우두자리가 너무크게 났고 혜영이 눈썹밑에 흠집이 생겨 너희들의 어머니와 함께 녀려했었는데 크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업혀다니는 태성이를 보고 잘 생겼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일도 생각한다.

나는 그사이 많은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항상 신념과 의지를 굳게 하면서. 내가 찾은길, 내가 걷는 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의 과학발전과 후대교육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다. 특히 위대한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따뜻한 품속에 안기며

오늘까지도 마음껏 과학탐구의 길을 걸을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큰 나의 행복이다. 너희들도 항상 정의와 진보를 사랑하고 새것에 민감하며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언제나 민족적 관심을 지니고 조국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힘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몸만 건강하면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대륙과 대양은 사이에 두고 나와 너희들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며 한마음한뜻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사람이 되자.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한 며늘아기들, 사위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한다. 모두 훌륭한 젊은이들일것이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 - 얼마나 재롱들을 피우고 재간동이 노릇들을 하고있겠니?

형수님과 화자 사진을 보니 반가웠다.

연식이도 잘 있느니? «삼촌, 삼촌» 하고 따르던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새해에도 모두들 건강하고 많은 일들을 성실히 하기 바란다.

1986. 1. 15

아버지 씬

“혜자, 태정, 혜영, 태성에게

1950년 8월 초 평양 교외의 어느 농촌집 앞 시내물에서 너희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혜여진것이 이같이 지나간 리별의 첫 시작이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느냐? 너희들과 혜여진후 어린것들이 어디서 쪽잠이라도 변변히 자고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제나 걱정하고있었는데 수십년이 지난 오늘 뜻밖에 너희들의 소식과 사진을 받아보게 되고 모두 다 훌륭한 사회의 역군으로 자라난 모습을 보니 참말 기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다.

그사이 물론 할머니, 백부님의 노력이 많이 깃들어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너희들의 어머니의 공이 클것이다. 너희들이 어린하겠느냐마는 너의 어머니에게 직접 보내지 못하는 나의 변함없는 정까지 합해서 언제나 어머니를 잘 돌보아 드리고 항상 마음기쁘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혜자와 태정이가 나란이 서서 노래를 잘 부르던 일이며 나와 손목잡고 모란봉, 대동강가, 룡라도 등으로 산보하던 일, 대학 내방 창문에서 내다보면 집앞에서 뛰노는 모습이 잘 보이던 일 등등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하면 끝이 없다. 그중에도 일하다가 문득 너희들중 누구의 생일날이란것이 생각나는 날에는 온종일 너희들 걱정을 하는 일이 많았다. 어렸을 때 혜자 우두자리가 너무 크게 났고 혜영이 눈섭 밑에 흠집이 생겨 너희들의 어머니와 함께 넘려했었는데 크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업혀다니는 태성이를 보고 잘 생겼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일도 생각한다.

나는 그사이 많은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항상 신념과 의지를 굳게 하면서 내가 찾은 길, 내가 걷는 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의 과학발전과 후대교육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다. 특히 위대한수령 김일성 주석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따뜻한 품속에 안기여 오늘까지도 마음껏 과학탐구의 길을 걸을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큰 나의 행복이다. 너희들도 항상 정의와 진보를 사랑하고 새것에 민감하며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언제나 민족적 량심을 지니고 조국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힘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몸만 건강하면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을것이다. 대륙과 대양을 사이에 두고 나와 너희들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사람이 되자.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한 며느라기들, 사위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한다. 모두 훌륭한 젊으니들일것이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 - 얼마나 재롱들을 피우고 재간동이 노릇들을 하고있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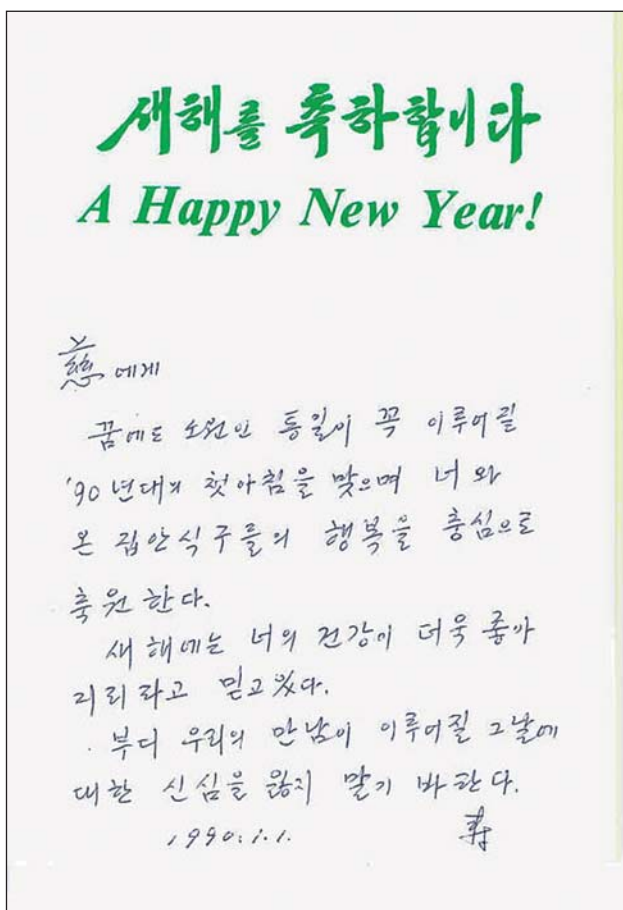
형수님과 화자 사진을 보니 반가웠다. 연식이기도 잘 있는지? “삼춘, 삼춘”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새해에도 모두들 건강하고 맑은 일들을 성실히 하기 바란다.

1986.1.15

아버지 쏘

2 1990.1.1. 아버지께서 투병 중의 첫째 딸 김혜자(金惠慈)에게 보내신 연하장의 전문



“慈에게

꿈에도 소원인 통일이 꼭 이루어질
'90년대의 첫 아침을 맞으며 너와
온 집안 식구들의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새 해에는 너의 건강이 더욱 좋아
지리라고 믿고 있다.

부디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신심을 잃지 말기 바란다.

1990.1.1.

壽”

3 1994. 8. 15.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보내신 저서 속에 동봉하신 쪽지

남 재 앞

이 책은 1988-89년 겨울 동안 처음으로 송도원에서 쓴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년 전인 1949년에 대동강변에서 《조선의 문법》을 쓰면서 당신이 적극 성원해 주었던 제1차 생각하면서 귀속해 올리는 당신의 기록 속삭임으로 풀는 가운데 이미 70이 넘은 때였지만 하느님 주기로 내내 끝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1990년 여름 밤늦은 근하러던 것인데 기회로 왕기 저우 이변에 보냅니다. 송도원 중례야영소에 갔다오는 중나-후진기 형제 보내지 된 것도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의 성격상 해명이 아니라 평소향 것입니다.

1994년 8월 15일

황
